

ABS, 금호 가동중단에 LG 감축...

CFR FE Asia 895-905달러로 35달러 급락 ...ChiMei도 60%로 조정

ABS 가격은 4월16일 CFR FE Asia 톤당 895-905달러로 35달러 급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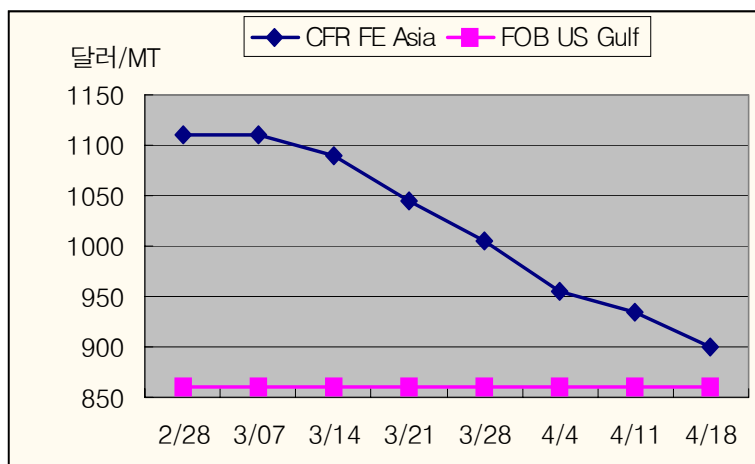
아시아 ABS 시장은 미국경기의 약세가 지속함에 따라 ABS 가공제품 수출이 줄어들어 매기가 줄어든 상태이며, 동남아 가격은 CFR SE Asia 895-905달러로 무려 55달러 폭락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ABS 수요가 줄어들어 재고가 쌓임에 따라 이미 가동을 조정에 들어가 가격하락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00-200톤 Cargo가 CFR Hong Kong 톤당 90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900달러 붕괴는 시간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ABS 수요가 줄어들에 따라 4월15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울산 소재 ABS 22만톤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했다. 타이완의 Chi Mei도 ABS 가동률을 60%로 조정한 상태이며, LG화학도 가동률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BS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ABS 가격은 Styrene 계약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FD NWE 톤당 1721-1828달러로 9달러 상승했다.

<Chemical Journal 2003/04/24>